

제 5 회 통신교육 실시

당 협회는 올해로 RI 일반면허를 위한 통신교육이 5회를 맞이하여 많은 성원속에서 351명의 수강생을 교육하게 되었다.

교육일정을 1월부터 9월까지로 이기간중 이론교육과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실험실습교육등을 받고 10월중 1일간 지도교수의 직접 강의를 듣고 수료시험을 보게 된다. 본 통신교육 수강자는 반드시 실험실습교육을 받아야만 수료를 할 수가 있다. 수강자는 지정된 일자에 교육에 출석하기 바라며 원자력 연수원에서는 수강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개강 첫날에는 통근버스를 유성고속버스 터미널에 배차시키고 있다.

실험실습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회 4월 10일 - 4월 12일
- 2회 4월 24일 - 4월 26일
- 3회 5월 15일 - 5월 17일
- 4회 6월 12일 - 6월 14일
- 5회 7월 3일 - 7월 5일
- 6회 8월 28일 - 8월 30일

제 23 차 이사회 개최

당 협회는 지난 3월 8일 협회회의실에서 임용규 회장을 비롯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3 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임용규 회장의 인사에 이어 지난 '90년 11월 23일 개최된 제 22 차 이사회 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RI폐기물 사업 추진 경위, RI취급특수면허와 감독자 면허시험대비 교육추진사항, 일본동위원소 연구발표회 참가신청 및 일본동위원소 이용조사단 내한 합동세미나 개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의안심의에 들어갔는데 '90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임원보선에 있어서 전풍일(원자력연구소

다목적 연구로 사업단 부단장) 전 이사의 사임에 따라 후임으로 신임 임재춘 원자력국장 이 이사로 선출되었다.

신임 임재춘 이사의 임기는 전풍일 전 이사의 잔여기간인 '92년 9월 30일까지이다.

한·일 합동세미나 개최

한국 방사성동위원소 협회는 일본 원자력 산업회의 산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회 회원원 20명이 오는 6월 10일 내한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대한 한·일합동 세미나를 6월 11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국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현황 설명 및 의학분야, 산업분야, 농학분야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논문 발표가 있다.

아울러 내한한 일본 대표단은 세미나가 끝난 후 원자력연구소 및 원자력병원, 포항공대등을 산업시찰하고 6월 15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직접 출국할 예정이다.

제28회 이공학에 있어서의 동위원소 연구 발표회 참가

매년 7월초순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있는 동위원소 연구발표회는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동위원소협회(JRIA)와 49개 관련학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 연구회는 당협회에서 '89, '90에 이어 이번이 3회째로 참가하게 된다. 발표회 일정은 '91. 7. 2~7. 4로 되어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는 나성호 박사가 참가하여 구두발표를 할 예정이며 대표단은 현재 모집중에 있다. 연구발표내용은 주로 방사성동위원소이용 및 방사선 계측, 그의 응용과학분야도 폭넓게 발표될 예정이다.

통신교육 확대 설문조사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시험 응시자를 위한 통신교육을 올해로 5회째 실시하고 있다. 본 통신교육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일반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현장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나 또는 실무자로 종사하고 있다. 반면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나 방사선 취급 감독자면허에 대한 교육은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 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시간관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수험생이 시험준비를 위한 교육이나 교재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합격률도 저조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면허소지자의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이번에 통신교육과정을 특수면허나 감독자면허에까지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 약 700개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관의 의견을 수렴코자 설문조사를 시행중에 있다.

陸鍾澈 監事 신간 “東과西” 發刊

協會監事로 在任中인 和公 陸鍾澈 漢陽大學校 工科大學 名譽教授는 1985년에 발간한 “和公文集”과 연계된 제2의 문집을 지난달 21일 발간하였다. 책의 내용은, ① 동양의 대표적 경서인 역경(周易)과 서양의 성경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서로 상통하고 조화 일치됨을 원문을 인용하여 상세히 증거함에 현대과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 원천적 진리의 통일성을 나타내 있다. ② 하나님(天, 乾天)의 역사섭리를 삼단계로; 동양적으로는 복희패시대, 문왕패시대 및 정역패시대로 보고 과거·현재·미래세의 역사섭리를 증거했으며 서양적으로는 삼(三)단계 “엘리아” 시대로 역사하심을 성경원문으로 증거하였다. ③ 이 세번째 “엘리아”의 오심은 “東方예수”임을 밝혔고 이 東方은 우리나라, 시온나라, 艮山(入艮山)이라고도 하며 셈

족, 황인족, 유다족인 “예수”께서 困大人(역경곤괘)으로 우리나라에 재림하실 것을 경문으로 상고해 보였고, ④ 끝으로 이나라에 임아뉴엘 하기위해서는 우선 정지작업, 일대정화작업이 선행됨이 하나님의 섭리이니. 일대개혁, 심영개조운동이 선행되어 “그날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슯치녀 신부감으로 우리모두들 거듭 나아하겠기에 지금까지의 죄와 악인 이기·위기주의를 타파하고 우상숭배인 금전만능의 금권숭배, 물욕탐욕에서 탈바꿈하여 뱀과 매미의 탈바꿈함과 같이 되어야 한다.

만일 때가 되었는데 탈바꿈, 허물벗기를 못하면 그뱀과 매미는 죽음이다. 우리도 이와 같음을 깨달아서 자심직각 이타, 위타주의의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도록 심영개조운동과 인간성 회복운동의 기폭재의 책, 사랑의 핵반응의 책, 만민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자는 계명의 책,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三要素를 강조하고 삶의 보람과 인간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하는 책, 복된 소리(音)의 외침의 책으로서 東西合德과 南北相通의 길잡이이고 다가오는 새시대란 인권동등, 물권동등으로 각국은 하나님(主님) 앞에서 다같은 자녀의 자격으로 됨은 물론 비자(Visa) 없이 각국의 국민은 형제자매격으로 왕래하게되어 지상낙원을 건설함에 필요한 중장비에 해당하리라고 본다.

